

### 공동체 소식



### 연중 제7주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의 뜻을 새기고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One Faith One Family One Future In CHRIST 캠페인 안내:

캠페인 관련 기도문을 미사 전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교구에서 하는 캠페인 설명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 “Enflame Our Hearts” Convocation 2019 안내

교구 대회 참가자들은 교구에서 발송한 메일 참조하시어 본당 사전 모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성인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합니다. 전례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Camp Tekakwitha 주일학교 여름캠프 신청(캔사스 대교구 주관):** 교육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등록 / Orientation:** 24일 미사와 점심식사 후 학부모 모임 있습니다

**성지회수 안내:** 지난 성지주일에 가져가신 성지는 3월 3일(일)까지 성당에 마련된 통에 넣어주시시오.

**2019 교무금 책정 가정(신앙생활봉헌서) \*고맙습니다. 교무금은 의무입니다.**

고영방 스테파노, 홍순익 마르티노, 정수한 베드로, 이영민 엘리사벳, 김태중 예레미아, 정석원 라파엘, 문석찬 요셉, 박계숙 박헬레나, 박옥희 헬레나, 강승호 아오스딩, 조지연 마리아, 박태주 로마노, 김정원 베드로, 차상욱 펠릭스, 김화년 요안나, 안병환 발렌티노, 김대연 요셉, 현교정 돈보스코, 박희영 카타리나, 김호원 요한, 조진환 베드로, 정연숙 막달레나, 차호섭 요셉 (23가정)

**미사 후 뒷정리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손을 하느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성당과 식당 그리고 화장실 청소와 정리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합니다.

#### 구역모임 안내 (게시판 참조)

구역내 모든 가정을 한차례씩 돌며 구역모임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구역 모임 시간 확인해 주십시오.

#### 3구역 구역모임

정수한 베드로 가정, 3월 2일(토) 오후 7시 30분  
Location: 6402 W 134th Ter Overland Park  
Phone: (913) 707-0939

####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건
금 주	2	217	165	68
차 주	34	211	156	401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주연(세실리아)	김태중(예레미아) 김시연(엘리사벳)
차 주	김명은(안젤라)	감영진(라파엘) 한춘희(라파엘라)

#### 주일미사 복사

	향복사	시중복사
금 주	차민서(임마누엘)	정예진(한나) 김지안(요한)
차 주	정예찬(미카엘)	김정원(안젤라) 김정빈(바오로)

#### 헌금 봉사자

금 주	이우영 가브리엘, 조진환 베드로
차 주	감영진 라파엘, 조진환 베드로

#### 애찬 봉사자

금 주	3조: 김주연, 박희영, 이영민
차 주	4조: 김화년, 안현숙, 송진희

본당연락처: korean1481@gmail.com

####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목 요 일: 10:00 AM  
첫 토요일: 10:00 AM  
(신심미사)

####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조진환 베드로 jinhwan.jo@gmail.com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pjsfelix@gmail.com

회장 고영방 스테파노  
(913) 227-9040

총무 박태주 로마노  
(610) 212-9539

###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7주일입니다. 지극히 인자하신 아버지 하느님께서 외아드님을 통하여 조건 없는 사랑을 밝혀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도 축복하게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 그림 묵상

“그래도사랑하라”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년을 추모하며, 우리의 마음 속에 큰 별로 살아계신 김수환 추기경님. 당신의 사진을 보며, 당신이 좋아하신 노을빛 님은 사랑 온 누리에 채우며 우리도 당신처럼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인 수녀 | 시인

제 1 독서 : 사무엘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26,2.7-9.12-13.22-23  
<주님께서 임금님을 제 손에 넘겨 주셨지만, 저는 손을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화답송 :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네. ◎
-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치우시네. 아버지가 자식을 가여워하듯,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 가여워하시네.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5,12.16-20  
<우리가 흙으로 된 그 사람의 모습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 알렐루야.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27-38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 생명의 말씀 **사울과 다윗, 첫째 인간과 둘째 인간, 이웃 사랑과 원수 사랑**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 이사이의 여덟 아들 중 막내입니다. 하느님은 사무엘 예언자를 보내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였고, (사울을 떠난) 하느님의 영은 다윗에게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비파를 잘 타던 다윗은 사울의 시중을 듣게 되는데, 다윗이 비파를 타면 사울을 괴롭히던 악령이 물러가기 때문에 그는 사울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비파만 잘 탔던 것이 아니라 무릿매질도 잘했습니다. 그는 필리스티아 투사 골리앗을 돌맹이 하나로 제압합니다. 그 후 다윗은 군대를 이끌고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둬 거두면서 백성들은 그를 칭송하게 되고, "사울은 수천을 치고 다윗은 수만을 쳤다네!" 라는 노래까지 나오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여 그를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탄과 사울의 딸 미갈의 도움으로 그는 목숨을 건집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필리스티아로 가서, 그곳에서 작은 무리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기회가 될 때마다 다윗을 쫓고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기도 하는데, 먼저 엔 게디의 한 동굴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1사무 24장 참조). 그러나 그는 사울의 겹옷 자락만 몰래 자르고 죽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독서를 보면 다윗은 하킬라에서 다시금 사울을 마주합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잡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옵니다.

다윗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사무엘기 상권 24장과 26장에서 다윗은 부하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울은 '주님의 기름부음받은이'이기에 그에게 손을 대거나 해쳐서는 안 된다고 다윗은 반복하여 말합니다. 이를 통해 주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상적 임금으로 다윗이 칭송받는 이유라고 사무엘기의 저자는 말하는 듯합니다.

오늘의 첫째 독서가 사울과 다윗을 대조하고 있다면, 오늘의 둘째 독서는 첫째 인간과 둘째 인간을 대조합니다. 우리가 흠으로 된 첫째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하늘에 속한 둘째 인간의 모습도 지니게 되었다고 바오로는

가르칩니다. 오늘의 복음에서도 이러한 대조는 역시 계속됩니다. 루카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원수사랑을 명령합니다. 이는 유다 전통이 가르쳐온 이웃사랑을 넘어서야 한다는 복음적 요청입니다.

이렇듯 이번 주일 독서와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의 갈림길을 보여줍니다. 단지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온 전통에 머무르지, 아니면 복음이 선포하는 새로운 요청에 응답하며 수고로운 삶을 살아갈지, 흠으로 된 옛 인간의 모습에 머물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새로운 인간을 따라 십자가와 함께 살아갈지, 권력을 쫓는 사울의 모습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주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살아갈지... 연중 제 7주일,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허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서리태를 사러 갔다.  
한가득 담아주시고  
한 움큼 더 주신다.

"이리 팔면 뭐가 남냐" 여쭙어보니  
"사람이 남지요" 하신다.

사랑은 "사람이 남는 거란다."  
사랑은 "그분만 남는 거란다."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루카 6,31)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 말씀의 이삭

## 성모님과 수녀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모상이 있습니다. 잠원동성당 마당에 계시는데요. 동그스름한 형상의 얼굴이 상당히 인상도 좋고 기품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성모상입니다.

제가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아내를 처음 그곳에 데려가 인사시켰고 큰 기쁨과 큰 슬픔이 있을 때마다 늘 찾아가 초를 밝히며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에 기쁨의 눈물도 참회의 눈물도 다 그분 앞에서 흘렸고 그래서 그분은 저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늘 함께 해주셨던 성모님이십니다.

제가 또 정말 좋아하는 수녀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을 처음 만난 건 94년 12월, 혜화동성당 앞 로터리에서입니다. 조그마한 체구에 엄청난 짐 보따리를 들고 가시는 모습에 몰고 가던 차를 세우고 여쭙보았습니다. "수녀님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좀 모셔다드릴까요?" 수녀님께선 고맙다며, 근처 4.19 기념관까지만 태워달라 하셨습니다. 차가 막혀 40분 정도 걸렸으니 근처는 아니었습니다. 덕분에 수녀님과 이런저런 얘길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녀님께선 차에서 내리시기 전 저의 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당시 취업 문제로 힘들어 하던 여동생에게 직장을 마련해 주셨고, 또 하나는 늘 떨어지던 텔런트 시험에 이번엔 붙을 거라고 장담을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당시 저는 방송국 공채 시험에 7전 8기라는 말이 무색하게 벌써 11번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그래

서 제가 "아! 수녀님 그게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실력도 있어야 하고 소위 말하는 백도 있어야..."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수녀님께선 시험 날짜를 물어보시더니 "아니에요. 이번에는 됐어요. 그날이 성 요셉 대축일이라 안 될 수가 없어요. 백이라면 하느님이 있잖아요. 뭘 걱정하세요?"

평범해 보이셨던 거와 달리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위엄과 카리스마가 상당하셨습니다. 더 이상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우리 수녀원에 가면 모든 수녀님에게 요셉씨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할게요. 그럼 될 거예요." 하면서 훌연히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 후 수녀님 말대로 12번 만에 공채시험에 붙었고 여동생은 그곳에서 오랜 세월을 버틴 후 정식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선 저랑 여동생이 당시 간절히 바라던 2가지의 소원을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수녀님을 통해 이뤄주셨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이브에는 오랜만에 보이나 수녀님이 계시는 살레시오 수녀원에서 온 가족이 함께 성탄 케이크의 촛불을 불며 즐거운 성탄 밤을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는 수녀님이 보이나 잘 살펴보세요. 주님께선 여러분의 기도를 어떻게든 들어주시기 위해 늘 살피고 또 살피시는 분이시니까요.

최재원 요셉 | 배우

## 기도묵상

기도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에게 전념하는 영혼의 몰입입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기도도 더 잘하게 됩니다.

- 복자 사울 드 루크 -